



이병태  
KAIST 경영대학장

## 기업은 당당하게 나서라

2012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 보인다. 세계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그나마 성장동인이었던 수출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경제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 중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자. 우선 한국 선도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과제다. 이미 한국 상품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그런데 상품의 글로벌화를 기업의 글로벌화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때 일본은 제품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제품 글로벌화는 한국, 중국 등 더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 부상과 더불어 경쟁 우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제품 글로벌화에 따른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조직을 만들었을 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상품 글로벌화를 기업 글로벌화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지 냉정히 생각해 볼 시점이다.

다음은 소위 자본주의 4.0이라는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 거리에 노숙자가 생기기 시작한 이래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월가 시위가 촉발됐고 어느 틈엔가 1%에 대한 99%의 분노 구도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지를 얻고 있는 듯 하다.

국민의 60% 이상이 가난은 사회구조 탓이라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기성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이러한 사회적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동반성장 또는 상생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회

“기업들이 적극적인 시장경제 수호 의지를 표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조차 오래 전에 폐기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런 반 기업정서를 확대해 갈 게 분명하다.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국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을 쉽게 여론화하고 정치적 압력 조직화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역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는 데 있다. 사회적 정서에 편승한 압력과 규제 확대는 결국 기업 활동과 국제 경쟁력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노력으로 감당하기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압력이 너무 거세 보인다. 이게 규제 확대로 나타날 경우 기업과 국가경제 모두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 수호 의지를 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스마트 시대에는 기업들이 영향력 있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구시대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이 국민에게 소외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계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도전 받고 있는 대의정치제도에 대해 그 대응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2년은 그 도전이 거세게 노정되는 해가 될 게 분명하다. ①